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8.08.21.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행관광산업위원회, 탄소 중립성 확보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행관광산업위원회(WTT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하며 150개의 회원 모두를 기후 친화적 조직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함 - 여행과 관광은 세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기후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와 관련하여, WTTC는 3억 130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탄소배출의 50%를 2035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 지속가능한 식품 자원의 제공, 2) 재생에너지 사용, 3) 지속가능성 계기판 사용, 4) 기술향상, 5) 물 사용 및 폐기물 절감, 6) 전기차 및 대체 연료 사용, 7) 대기업의 탄소감축, 7) 교통의 사이클 옵션 제공, 8) 지속가능한 소재와 저탄소 설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9) 지역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8/13, UNFCCC)</p>
GCF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회 태평양 지역과의 기후활동에 대한 새로운 포부를 담은 두 번째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크로네시아 연방이 주최한 태평양과의 두 번째 대화는 GCF와 그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강화된 협력으로 성사됨 - 4일간 행사에 장관, 국가 대표단, 공인 기업, 시민사회, 민간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추가적 프로젝트를 포함제출하는 등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음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purple;">(8/2 GCF)</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CN, 짐바브웨(Zimbabwe)의 에너지 및 물 효율성 감사를 위한 10개

		<p>의 파일럿 회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짐바브웨(Zimbabwe)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가 물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종종 공급이 산업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짐바브웨(Zimbabwe) 당국은 이런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장벽이 있어서 정책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CTCN에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짐바브웨(Zimbabwe)의 에너지와 수자원 효율성 감사를 위해 10개의 파일럿 회사를 선택하여 기술 개선 지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후속으로 모니터링과 추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예정 <p>(8/13, CTCN)</p>
--	--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G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 캄보디아 저탄소 개발을 위한 중국의 지구환경연구소(GEI)와 MOU 체결 - GEI와 GGGI는 캄보디아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유도하고 있음 - 두 기관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난 7월 MOU에 서명함 - GGGI는 현재 캄보디아와 함께 녹색성장을 국가개발 계획으로 주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8/9, GGGI)</p>

3. 기후기술 정책

구분	내용
----	----

<p>국내</p>	<p>정책일반</p>	<p>○ 과기부, 기후기술 기반 에너지 자립 도시발전 시범 프로젝트 추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검토 중인 ‘도시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발전을 통해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전달하며, 소비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전가열냉방 생산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충전소 등이 주요 시설임.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음 - 도시발전 시범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도시발전 실증단지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며, 관련 기후기술 개발 착수 및 소규모 선도 사업(올해 하반기부터 기획 후 2019년 출연(연) 중심 건물 설계 및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발전할 전망 <p>(8/20, 인더스트리뉴스)</p>
		<p>○ 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 최초 AMP 활용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만공사(IPA)는 접안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을 사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하기로 밝힘 - 지난 4월, IPA는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한전 인천본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향후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t)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38%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 가능 <p>(8/16, 헤럴드경제)</p>
<p>국외</p>	<p>일반</p>	<p>○ 중국, 내항 수송용 선박 배출기준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존 미달의 중고선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 9월 1일부터 내항수송에 투입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Tier II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함 - 이번 기준 강화로 2011년 1월 이후 건조한 선박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 중고선의 선령을 약 11년 감소시킨 효과 -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관련 인터뷰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는 선박, 자동차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p>(8/17, Kotra)</p>
		<p>○ 인도,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 따른 태양광 셀 및 LED 시장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6월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 175GW를 확보하겠다고 밝힘. 이중 100GW는 태양광 발전으로, 현재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의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되는 장비의 90%이상은 수입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88.2%), 말레이시아(5.9%), 대만(2.2%) 등임 - 인도의 LED 조명시장은 2010 ~ 2017년 동안 연평균 약 52% 성장하여 2017년 기준 시장규모는 15억 달러에 이룸 - 인도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억 7000만 개의 전구와 3천 500만 개의 가로등을 교환, 신규 배치하고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대체하는 사업(UJALA)을 진행. - 인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right;">(8/18, Kotra)</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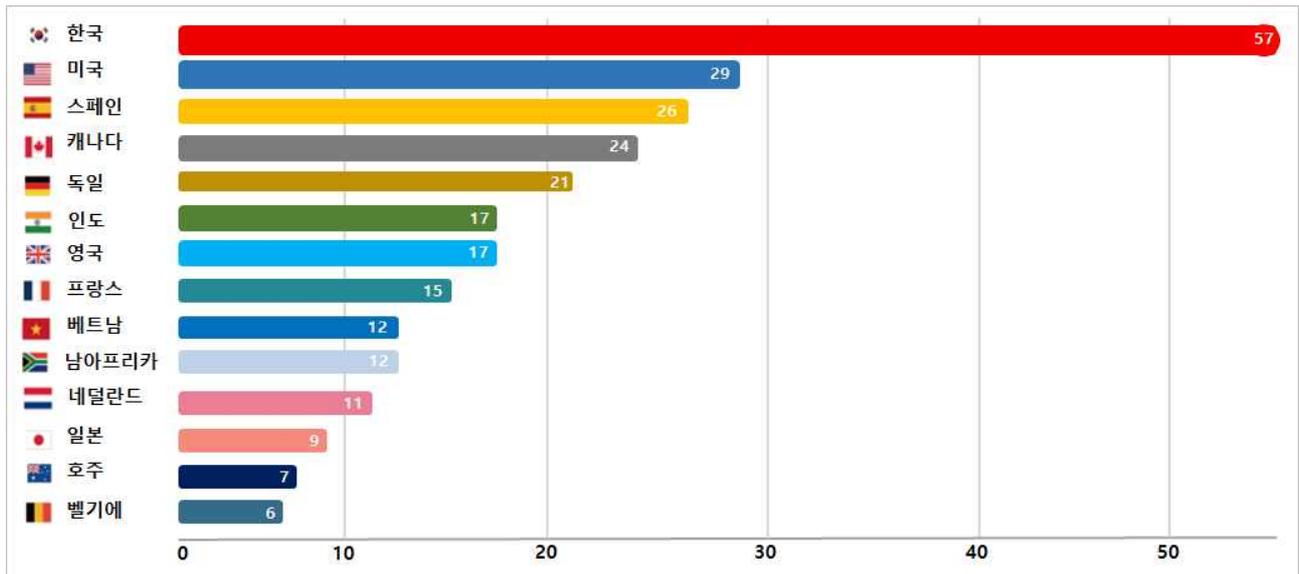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8.08.20.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9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8.08.2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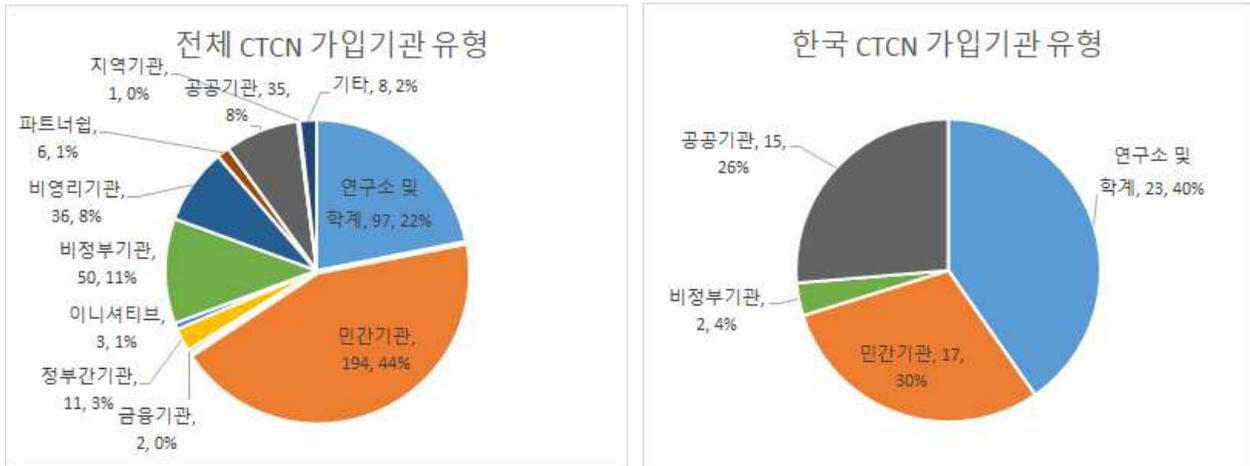
- 총 443 개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8.08.20. 현재)



<CTCN 전체 443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57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443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94건으로 4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7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50건(11%), 36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57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3건(40%)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민간기관이 17건(30%)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8.08.2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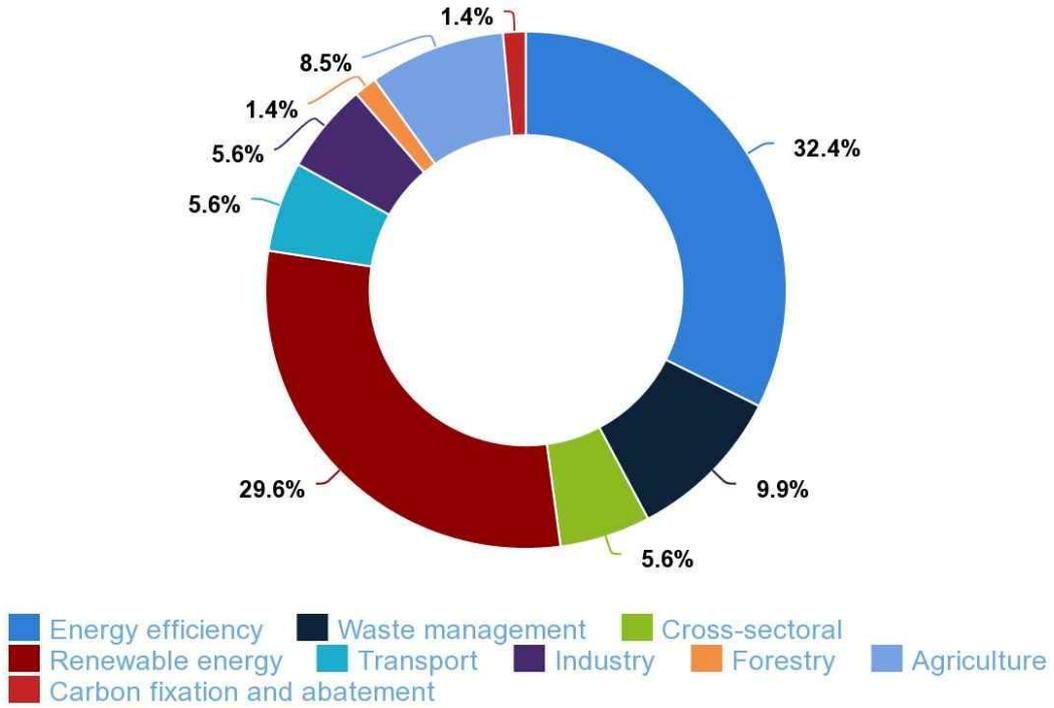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과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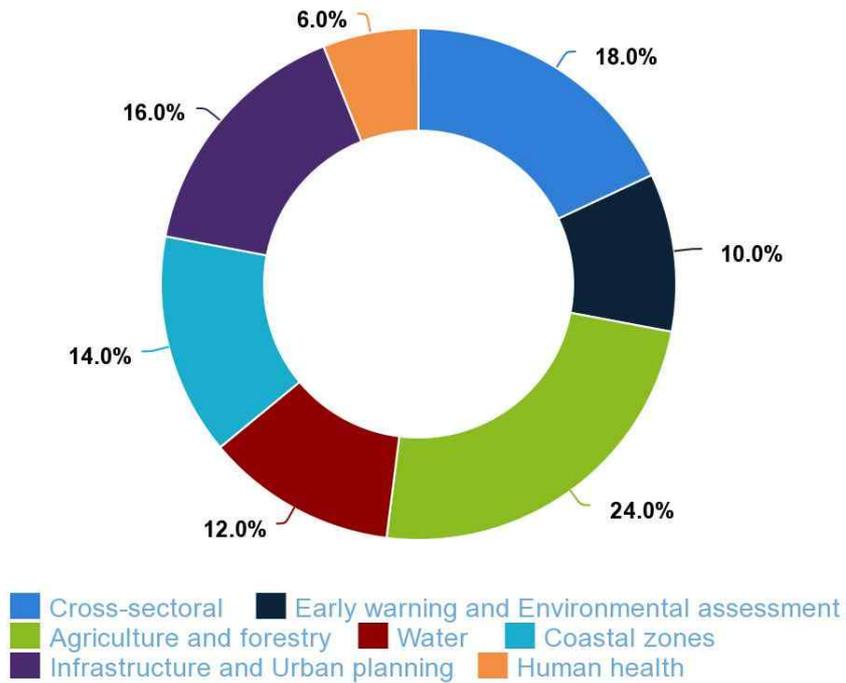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49	한국농어촌공사	N0431
50	한국광해관리공단	N0434
51	산림조합중앙회	N0448
52	(주)에이엘지시스템즈	N0449
53	(사)더브릿지	N0452
54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N0457
55	ASEIC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N0458
56	(주)유신	N0463
57	한국지역난방공사	N0465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2018.08.20. 현재)

- 제출된 TA : 211개
- Active TA : 117개 (감축관련 TA-53.6%, 적응관련 TA-31.9%)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